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조승열/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단체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지난 3-4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가 신규로 가입하여 2004년 6월 현재 137 단체 (JKMS,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109, 의과대학 10, 기타학회 17)이며, 개인회원이 23명입니다.

특별회원은 광문출판사, 아카데미아,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회, 최신의학사로 총 6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사무국 (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교육연수위원회 Workshop 개최

2004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이 의협협의 교육연수위원회 주관으로 '의학연구의 설계와 수행'이라는 주제로 5월 19일 (수)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발표된 자료는 의협협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Workshop자료)

- 2 : 00 ~ 2 : 10 회장 인사
- 2 : 10 ~ 2 : 40 의학연구에서의 비틀림
- 2 : 40 ~ 3 : 10 임상연구의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방법
- 3 : 10 ~ 3 : 40 지역사회 유병률 조사의 수행사례
- 3 : 40 ~ 3 : 55 휴 식
- 3 : 55 ~ 4 : 25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와 수행
- 4 : 25 ~ 4 : 55 코호트연구의 설계와 수행
- 4 : 55 ~ 5 : 25 비교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 조 승 열 (의협협 회장, 성균관의대)
- 안 윤 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 정 우 경 (가천의대 내과학)
- 최 보 울 (한양의대 예방의학)
- 윤 병 우 (서울의대 신경과학)
- 김 순 덕 (고려의대 예방의학)
- 박 병 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기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통합 정보 유통 현황 및 저작권

허 선(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정보관리위원회 간사)

학술지에 게재된 정보가 넓게 읽히고 그리고 많이 인용된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의 소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지의 통합 정보 제공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코리아메드(KoreaMed) [<http://koreamed.org>]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등재 학술지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학술지 총 95종의 영문 초록 7만건을 PubMed 형식으로 제공하며 1997년부터 최근 자료가 95% 이상 수록되어 있다. 전문(全文)은 각 학술지에 연결만 하고 있다.
- 2) 메드릭(MedRIC) [<http://www.medric.or.kr>] : 충북의대의 의학연구정보센터에서 운영하며 보건의로 전문야 약 500 여종 20만 여건의 서지사항 또는 초록을 제공하며, 대한의학회 회원학술지는 133종으로 모두 무료이다.
-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http://www.riss4u.net>] : 국립기관이며,全文 제공 학술지 886종 중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는 6종,全文 연계 학술지 648종 중에서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는 28종이며 KERIS 자체 구축 전문은 무료 이용 가능하다.
- 4) 한국학술정보[<http://www.koreanstudies.com>] : 상임회사로 학술지 전문 제공 사업을 수행하여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는 32종이며全文 정보는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언어, 등재하는 학술지의 사전 평가 여부, 최근 호의 등재 속도 및 유료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외부 기관과 학술지 정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회가 고려할 점

우선 자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곳은 영리, 비영리 단체 어느 곳과도 같이 DB 구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장단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1. 구축되는 DB의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의학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욕망이 가려지지 않은 DB는 진정한 DB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만이 DB화 되는 장치

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 학회에 저작권료 제공이 가능하나, 저작권 이양을 요청할 것으므로, 나중에 학회에서 디지털 저작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요구는 없으나 사업 지속성 및 작업 속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급단의 경우 중도에 아무런 통고 없이 중단하여도 학회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 사업을 하는 곳에 학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그만 두면 학회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3.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중 우선 국영문 초록 정보만 구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과도全文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잘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학회가 저작권은 계속 확보하도록 하고, 학회에서 경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학술지 또는 학술지 파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4. 이미 학술지의 초록 및 전문 정보 구축을 마친 학회는 그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회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는 굳이 다른 기관과 더 이상 작업할 이유는 없다. 단지 이런 학회 차원의 작업은 자체 경비를 들여 구축한 것이므로, 계속 사업으로서 경비 조달이 가능하면 충분한 것이고 혹, 경비 조달 문제가 있다면, 다른 단체와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

학회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상업회사와 계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이양한 경우라면 간혹, 곤란한 경우에 부딪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브메드나 코리아메드에 등재된 뒤, 전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상업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제로 비록 유료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여도 연결하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서 요청한 학술지 전문 파일도 이미 다른 곳에 계약

이 되어 있다면, 학진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 자료 확보의 중요성

지금은 대부분의 학술지의 파일을 인쇄소, 출판사 또는 학회에서 한글, 워드, PDF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어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학술지 논문 파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학학술 정보 제공 방향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학술지 평가 사업과 함께 시도하는 KoreaMed가 의학 분야에서 익숙한 PubMed 형식과 절차를 따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잘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학술 문헌의 영문 서지사항 및 초록 정보는 KoreaMed를 관문으로 하여 전세계 인류 및 의사를 대상으로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회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학회는 가입하여 학술지 평가를 받은 후에 KoreaMed에 모두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원 단체의 학술지를 모두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2001년 도부터 시작한 국내 의학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도 조사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ISI 사의 Web of Science 와 같은 형태인 국내 의학학술지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인 KoMCI Web을 구축 중이므로,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온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로 유지하는 데 힘을 써서 국내 문헌을 인용하고, 연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KoreaMed (www.koreamed.org) 현황

16차에 걸친 의학학술지 평가회에서 2.5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97종의 학술지가 KoreaMed에 등재 (2004년 6월 28일 현재)되고 있으며 78,000여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

루 평균 500여명이 본 site를 방문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KoreaMed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KoreaMed LinkOut 서비스

KoreaMed에서 검색된 논문의 원문을 보고 싶을 때 LinkOut icon을 클릭하면 학회 website의 학술지 초록 또는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LinkOut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지는 2004년 6월 현재 총 26종(오른쪽 표)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있는 학회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LinkOut을 원하는 학회는 본 협회와의 KoreaMed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의사학
대한간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Cancer Res Treat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신경외과학회지	Exp Mol Med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J Korean Med Sci
대한남성과학회지	대한영상의학회지	Korean J Gastroenterol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Korean J Parasitol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Korean J Radiol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혈액학회지	Yonsei Med J
대한병리학회지	예방의학회지	총 26종



KoreaMed Retro 서비스

의협회의 KoreaMed에서는 KoreaMed 운영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1997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영문초록을 KoreaMed Retro (Retrospective)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PubMed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과거 자료도 전 세계에 모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회원단체에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범위는 창간호부터 가능하며, 일부 자료만 보내주어도 올려드립니다. KoreaMed Retro에 자료를 올리기를 원하는 회원단체는 KoreaMed XML 형식에 맞추어 XML 파일을 만들어 의협으로 보내주시고, KoreaMed XML 파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협회의 KoreaMed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KoreaMed Retro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지 중에

학술지명	Retro	학술지명	Retro
기본간호학회지	1994-	대한신경과학회지	1983-
대한간학회지	1995-	대한영상의학회지	1991-
대한간호학회지	1970-	대한의료정보학회지	1995-
대한남성과학회지	1983-	대한통증학회지	1988-
대한류마티스학회지	1994-	의사학	1992-
대한마취과학회지	1968-	J Korean Med Sci	1986-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1983-	Korean J Parasitol	1963-
대한병리학회지	1985-	Yonsei Med J	1960-

서 창간호부터 모두 검색이 가능한 학술지는 표와 같이 총 16종이며 “소아과”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가 진행중에 있어 곧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학회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CI 학술지의 JCR 2003 인용지수

KoreaMed 등재 학술지 중 SCI 등재학술지는 4종이며, 이 학술지들의 JCR 2003 인용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지약어명	2003 Total Cites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2003 Articles	Cited Half-life
KOREAN J RADIOL	138	1.783	0.065	31	2.5
EXP MOL MED	332	1.373	0.169	77	2.9
J KOREAN MED SCI	610	0.633	0.029	174	3.9
YONSEI MED J	507	0.417	0.034	177	5.2



제 1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실시

2004년 6월 22일 (화) 오후 4시부터 서울의대 2층 교수회의실에서 제 1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잡지 등 5종의 학술지가 평가를 받았고 이

중에서 수면·정신생리,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평점 2.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KoreaMed (www.koreamed.org)에 등재되었습니다. 평가점수와 심사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 심사평

1.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잡지

산부인과학의 세부전문학술지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이번에 평가한 2003년도 5월호는 6편의 원저와 3편의 증례를 포함하여 55쪽을 발행하였다. 투고규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고 원저와 그 외 형식의 논문을 구분하여 규정된 것이 돋보였고, 표의 각주 표기법 미비, 간기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 정도가 지적 사항이다. 저작권이양동의서나 저자점검표는 미비되어 있었다. 실제 논문의 게재에서는 본문의 구성요소가 논문마다 다르고, 영문초록의 형식도 규정과 다른 논문이 여럿 있었다. 특히 투고원고의 상호심의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도 전문학술지에 어울리지 않아 사진의 인쇄가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미흡하였다. 세부전문학술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갖고 있으며 논문이 일정량 모이면 한 호를 인쇄하는 형식으로 어렵게 편집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었다.

2. 대한의상학회지

연 2회 정기 발간하는 학술지로 2003년 16권 2호를 심사하였다. 투고규정이 너무 간단하여 논문의 종류별 구성요소와 논문 작성의 기본 요령이 없고, 도량형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자점검표가 없고 교정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논문의 체제가 일정치 않아 저자 소속표기도 다양하고, 표와 그림의 형식이 제각각이며 설명이 없는 그림과 약어 설명, 각주가 없는 표가 있다. 참고문헌 표기도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이 많다. 원저와 증례가 혼합 배치되어 구분이 필요하고, 논문의 영문제목과 영문초록의 형식이 다르거나 오자, 문법이 틀려 개선을 요한다.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요약제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회소식과 입회원서가 목차 전에 배치되어 지면배치에 대한 개선을 요한다. 찾아보기표의 작성, 목차관리, 투고규정의 보완, 표지 및 판권과 논문 체제 등 편집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한 학술지로 평가한다.

3. 산업간호학회지

간호학의 세부전문학술지로 연 2회 발행한다. 이번에 평가한 12권 2호 (2003년 11월호)는 원저 7편, 학위논문 1편으로 78쪽을 발행하였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자점검표가 없고 투고규정이 비교적 간단하였다. 본문의 주요 구성요소 작성 요령은 없고 참고문헌의 예시가 다양하게 있어 이 예시로 인하여 오히려 이탤릭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학술지는 학위논문을 그대로 게재하기 때문에 원저와 학위논문을 구분하여 형식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 게재된 논문의 체제가 다양하다. 저자 소속표기도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표가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발표되며 많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 표가 눈에 뜨인다. 논문의 영문제목의 인쇄하는 양식과 영문초록의 처리 등도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동스러운 부분은 참고문헌에서 저자별로 제각각 기술한 이탤릭체 부분이다. 이탤릭체 인쇄는 일정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일관성있게 하여야 독자의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다.

4. 수면·정신생리

이 학술지는 정신과학의 한 분야인 대한수면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연 2회 발행한다. 이번에 2003년 12월에 발간한 10권 2호를 평가하였다. 특집 2편, 종설 1편, 원저 3편, 증례 1편을 게재하였다. 이미 한 번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 투고규정을 잘 정비하였고 논문 양식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여 혼동이 없었다. 개개 논문도 규정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 다만 투고규정에 표의 각주표기방법이 혼란스러워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일부 긴 영문초록이 있었고, 논문에 따라 첫 장의 하단주 인쇄 방식에서 반단 또는 전단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학술지의 판형이 크고 제목, 저자명, 소속, 영문초록, 본문의 인쇄방식이 깔끔하여 독자가 읽기에 편리하게 편집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5.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이 학술지는 간호학의 세부 전문학술지로 연 4회 발행되고 있다. 이번에 평가한 학술지는 2004년 3월에 발간한 10권 1호이며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학술지는 투고규정이 자세하고 심사절차 및 논문평가표도 논문 분야별로 자세히 규정된 것이 돋보였다. 그러나 투고규정에 오자가 있고 동의서 취득, 제목 작성 요령, 도량형에 관한 사항이 없고 표의 각주 표기법에 대한 기술이 없다. 실제 논문의 게재에서는 저자소속의 표기방법이 일정치 않고 영문초록은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논문의 항목은 글씨 굵기로 구분하였으나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겠고, 결론은 독립 항목으로 지정하고 결과를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결과를 결론에 다시 나열한 논문이 있어, 결론 항목은 없애고 고안의 마지막에 결론을 쓰고 국문요약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문헌 표기방법은 투고규정에 매우 자세히 규정되었음에도 다르게 쓴 논문이 많고, 표나 그림은 전문적인 수정을 요한다. 특히 참고문헌의 표기나 인용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적인 국제 생의학잡지의 표기방법을 따르는 것이 권고되고, 영문초록도 논문의 끝보다는 앞에 배치하고, 종설과 원저의 구분, 찾아보기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비교적 편집관리가 잘 되었고 이상을 보완하면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16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결과표

■시 간 : 2004. 6. 22(화) 오후 4시

■장 소 : 서울의대 교수회의실

구분	세부항목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잡지	대한의상학회지	산업간호학회지	수면정신생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자 체 평 가	1-1	2	2	2	5	3
	1-2	2	2.33	4	4	4
	1-3	1	1	1	3	2
	1-4	3	3	5	5	5
	1-5	1	2	5	5	2.33
	1-6	2.33	4.67	5	5	5
	1-7	0	0.67	2.67	3	4
	1-8	1	1.67	4	3	3
	1-9	1	5	5	5	5
	1-10	0	1.67	1	1	2.33
	1-11	0	2	5	3	2.33
	1-12	1	2	3.67	2.33	2.33
	1-13	0	0	0	0	1.33
소 계		14.33	28	43.33	44.33	41.67
실 용 평 가	2-1	2.67	2.67	2	4.33	3.67
	2-2	2	2.67	2.67	1.33	2.67
	2-3	3.67	0.67	4.33	3.33	4.67
	2-4	4.67	3	2.67	4.67	2.67
	2-5	2.33	1	2.33	2.67	5
	2-6	2.67	1	1	3	1
	2-7	2	2.33	1	2.67	3
	2-8	0	3	0.33	5	3
	2-9	2	1.67	0.83	2.33	1.33
	2-10	3.67	1.67	1.33	4.67	2.33
	2-11	2.50	1.67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12	해당무	1.67	3.67	5	2.33
	2-13	2.17	3.67	2.67	4	3.67
소 계		30.33	26.67	24.83	43	35.33
협 의 회 조 사 항 목	3-1	1	1	0	1	0
	3-2	1	1	2	1	3
	3-3	0	0	0	0	0
	3-4	0	0	0	0	0
	3-5	0	0	0	0	0
	3-6	0	0	0	0	0
	소 계		2	2	2	2
통합평점		1.51	1.77	2.26	2.88	2.58
KoreaMed 등재					0	0

© 세부항목 내용은 www.kamje.or.kr-「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서 볼수 있다.